

<표> '11년 2분기~'12년 2분기 오락·문화 소비지출 변동

(단위 : 천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12년1분기 (전분기 대비)	12년2분기 (전분기 대비)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2분기 구성비	3분기 구성비	4분기 구성비	1분기 구성비	2분기 구성비		
소비 지출	2,303.7 (-5.6)	2,443.6 (6.1)	2,379.6 (-2.6)	2,568.3 (7.9)	2,386.1 (-7.1)	100	100	100	100	100	5.3	3.6
실질	2,223.7 (-6.3)	2,333.9 (5.0)	2,268.4 (-2.8)	2,425.2 (6.9)	2,248.9 (-7.3)	-	-	-	-	-	2.2	1.1
식품 및 비주류음료	320.7 (-0.7)	367.4 (14.6)	346.7 (-5.6)	342.1 (-1.3)	326.4 (-4.6)	13.9	15.0	14.6	13.3	13.7	5.9	1.8
주류 및 담배	26.6 (0.6)	30.3 (14.2)	28.1 (-7.4)	27.5 (-2.2)	28.0 (1.9)	1.2	1.2	1.2	1.1	1.2	4.0	5.3
의류 및 신발	155.9 (4.5)	129.1 (-17.2)	193.0 (49.5)	157.7 (-18.3)	170.4 (8.0)	6.8	5.3	8.1	6.1	7.1	5.8	9.3
주거 및 수도광열	241.1 (-18.5)	200.7 (-16.8)	231.9 (15.5)	316.1 (36.3)	244.9 (-22.5)	10.5	8.2	9.7	12.3	10.3	6.9	1.6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90.0 (8.6)	92.1 (2.3)	95.0 (3.1)	89.6 (-5.6)	90.2 (0.7)	3.9	3.8	4.0	3.5	3.8	8.1	0.2
보 건	148.3 (-7.1)	158.8 (7.1)	158.8 (0.0)	166.6 (4.9)	158.7 (-4.7)	6.4	6.5	6.7	6.5	6.7	4.4	7.0
교 통	300.6 (7.8)	308.3 (2.6)	289.2 (-6.2)	288.7 (-0.2)	308.5 (6.9)	13.0	12.6	12.2	11.2	12.9	3.6	2.6
통 신	141.2 (1.9)	144.2 (2.1)	147.4 (2.2)	148.5 (0.7)	154.4 (4.0)	6.1	5.9	6.2	5.8	6.5	7.1	9.3
<b>오락·문화</b>	<b>126.0 (-3.9)</b>	<b>137.5 (9.2)</b>	<b>121.1 (-11.9)</b>	<b>138.8 (14.5)</b>	<b>134.6 (-3.0)</b>	<b>5.5</b>	<b>5.6</b>	<b>5.1</b>	<b>5.4</b>	<b>5.6</b>	<b>5.9</b>	<b>6.8</b>
교 육	231.4 (-36.6)	351.3 (51.8)	231.2 (-34.2)	364.4 (57.6)	232.0 (-36.4)	10.0	14.4	9.7	14.2	9.7	-0.2	0.2
음식·숙박	301.6 (9.8)	313.0 (3.8)	306.7 (-2.0)	296.3 (-3.4)	320.3 (8.1)	13.1	12.8	12.9	11.5	13.4	7.9	6.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220.3 (2.7)	210.8 (-4.3)	230.5 (9.3)	231.8 (0.6)	217.7 (-6.1)	9.6	8.6	9.7	9.0	9.1	8.1	-1.2

출처 : 통계청(2012), '11년 2분기~'12년 2분기 가계동향

- '12년 2분기 월평균 오락·문화지출은 약 13만 4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8% 증가. '11년 1분기 이후 등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12년 2분기는 전분기대비 3.0% 하락
  - '12년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중 콘텐츠산업 영역인 오락문화 지출은 전년동기대비 약 8천 6백원 정도 증가
  - 오락·문화 소비지출은 '08년 4분기에 9만 7천원의 수준에서 이후 전분기대비 증가세가 '10년 1분기 이후 등락세로 전환
  - ※'10년 1분기부터 '12년 1분기까지 전분기대비 오락문화 소비지출 증감률은 각각 22.5%,

-9.0%, 9.7%, -5.2%, 5.5%, -3.9%, 9.2%, -11.9%, 14.5%로 등락세. 오락문화 소비지출 증감률은 전체 소비지출 증감 등락추세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변동폭의 경우 '11년 3분기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12년 2분기 오락·문화 소비지출과 함께 기타 상품·서비스를 제외한 전 분야의 지출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 특히 전체 소비지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보다 높게 증가한 것은 주류·담배 소비지출, 의류·신발 소비지출, 보건 소비지출, 통신 소비지출, 음식·숙박 소비지출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5.3%, 9.3%, 7.0%, 9.3%, 6.2% 증가

- 오락·문화 소비지출은 '09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상승이 이어지면서 '12년 1분기까지 소비지출 증가에 일부 긍정적 영향이 있었으나, 유럽재정위기 미해소에 따른 국내 주요 교역국가들의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및 물가 상승 압박 증대 등으로 국내 수요 확대의 심리적 위축 우려. 향후 '12년 3분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실질소득 감소가 가시화되어 전반적인 소비지출 위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오락·문화 소비지출은 스마트 콘텐츠 수요증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 전망